

광주시, 2026년까지 친환경차 2만7000여대 보급

올해 친환경차 시장 급격히 위축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노후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보조금

광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친환경차 시장이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소중립 도시를 만든다는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통해 2026년까지 친환경차 2만 7000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019년말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대수가 3183대(전기차 2690대, 수소차493대)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누적대수가 251%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기준 광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1만 1174대(전기차 9912대, 수소차 1262대)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에는 1214대의 친환

경차가 등록됐고, 지난 2021년 2441대가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에 4336대의 친환경차가 더 돌아다니게 됐다.

이에 최근 전기차가 배터리화재와 급발전 사고 등이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반해 보조금감소 등의 이유로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지적돼온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대량 보급됐지만 잦은 고장, 민간충전사업자의 관리 소홀, 주차가 충전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기차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차의 경우 충전의 불편, 출시된지 오래된 단일 차종, 더딘 기술개발, 디자인 낙후 등으로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해 나온다.

광주시도 수소 충전소 인력확보 어려움으로 24시간 충전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충전소 설치비 과다발생(개소당 30억원)으로 충전 인프라의 확산에 어려움(8월 31일자 광주일보 6면)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26년까지 친환경차 2만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세웠다.

수송부문 탄소저감효과가 높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차의 '기반'을 조성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4140억 4300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2만 7234대를 보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1만 5500대를, 수소차는 560대를 목표로 한다.

먼저 충전 인프라 구축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는 2026년까지 6000기, 수소차 충전기는 13기로 계획했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충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노상주차장, 학교 주변 등 '거주지 인근'에 집중 보급시킬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충전요금 현실화, 국비지원 확대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 매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브랜드사업)한국

전력(전주거처형 충전기) 등 관련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노후차 조기폐차에도 나선다. 지난해까지 노후차 조기폐차 차량은 2만 2697대다. 광주시는 매년 4000대의 노후차를 조기폐차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까지 1만 4300대에 달하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와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설치시 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LPG 화물차, LPG 통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킨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자동차는 1556대다. 이에 광주시는 저공해자동차 구매력 향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내년 중 LPG 협회와 '지역내 LPG 저공해차 구매 향상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 '수송' 부분을 친환경 방향으로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탄소중립 월 최대 4만원 지급 환경부 '어디로든 그린카드'

환경부가 탄소중립 생활시 월 최대 4만원을 지급하는 카드를 선보인다.

7일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해 9개 금융기업 및 기관(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비씨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이날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카드 사업은 2011년 첫선을 보이며 에코머니포인트 1000점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재출시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2050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소비와 교통생활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춰 선보여진다.

먼저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 변화를 감안한 무공해차(전기, 수소차)충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차 충전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월 2만원 한도로 충전금액 최대 4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 구매시 최대 25% 할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스타벅스, 풀바셋, 이디야)에서 텀블러로 결제하면 탄소중립포인트(300원)를 받을 수 있다.

카드의 해당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해 발급 가능하다. 다만 우체국과 제주은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 초등학교서 친환경 프로그램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선다.

7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 25명이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광주시 남구의 조봉·빛여울초등학교에서 1~4학년 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민활동가들은 지난 3월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마치고 남구 관내에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촉진에 참여해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직접 겪은 경험과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강단에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에너지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분야 동영상 시청과 태양광 만들기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체험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인식전환 주민활동가들이 심화교육 수료 후 강사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화에 대한 남구 관내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와글와글' 광산청소년총회 광주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광산청소년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쓰레기 중량제도 시범운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광주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제공>

정신장애인 생생한 일상이야기 직접 듣고 자립방안 논의한다

8일 전일빌딩 245 'Talk Plus'

정신장애인들이 병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해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는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자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립을 실천한 정신장애인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Talk Plus:함께 걷는 정신장애인의 자립 이야기" 행사가 8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245 8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국 각지의 정신장애인 4명의 발표자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생생한 일상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당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정책·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와 서울, 부산지역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장애인 단체의 활동가들이 발표를 맡는다. 활동가들은 자립생활을 준비·실천하면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거나 고충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경험을 들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행사현장에서는 ▲광주시 정신질환 당사자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현황(왕수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자립의 의미와 우리의 역할(김지선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신요양시설에서 10년 이상 생활하고 올해 2월 광주 소재의 자립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정신장애인 주성주(42)씨는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지원되는 나래주택에서 혼자 생활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요리나 식사, 청소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생님과 동료지원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금전관리, 공공서 업무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하다는 것이 정신장애인들의 설명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1년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박철수(47)씨는 "처음 자립을 준비할 때 가족과 친구 뿐만 아니라 정신재활센터 선생님 등 주변의 도움이 있어 자립할 수 있었다"며 "자립하게 되니 외롭거나 허전한 마음이 드는 등 정서적 고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혼자사

는 정신장애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생활 정보도 나누는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지난 2021년 개최한 <정신장애 당사자가 바라는 자립생활 지원방안>에서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자립생활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을까를 고민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재활시설협회, 송광정신재활센터, 요한빌리지가 공동주최한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 정신장애 당사자·가족,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저축,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행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목적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일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